



드루파2016 테크니컬 리포트

친환경 주제로 11월 17일 미디어회의 개최

드루파는 최신 기술의 트렌드와 정보를 제공하는 인쇄산업에서 가장 유력한 이벤트다. 이에 주최자인 메세 뒤셀도르프는 4년마다 개최하는 드루파에 앞서 지속적으로 리포트를 발간, 차기 전시회 관련 주요 이슈를 전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는 11월 17일과 18일 '지속가능성을 다시 생각하라'라는 주제 아래 다니엘 담 박사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개최하는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산을 위한 경제성의 동기화와 관련한 강연회 소식을 전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메세 뒤셀도르프는 드루파2016에서 다루게 될 새로운 이슈와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Media Mundo 산업 액션 그룹과 장기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드루파는 오는 11월 17일과 18일 1박 2일에 걸쳐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여러 협력 파트너와 공동으로 5번째 Media Mundo 회의를 개최한다.

NGO 지류업체 후원으로 진행

이 회의는 2011년과 2012년에 진행됐던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지속가능성을 다시 생각하라-지속가능한 미디어 생산을 위한 경제적인 동기부여'라는 모토에 집중한다. 이전에 개최된 행사

와 비교하면, 이전에는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산이라는 개념이 여러 분야의 하나로 여겨졌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가능성의 이슈가 경제성과 똑 같이 중요한 선상에서 다뤄진다는 특성이 있다. 그만큼 친환경 이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인쇄 및 미디어 산업은 경제 상황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으며, 시장 포지션 통합이라는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또한 이전에 누렸던 주도권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이번 회의는 NGO 파트너인 WWF와 FSC가 후원하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유럽의 선도 그룹인 안탈리스, 유럽 유로파 선도 지류 도매업체인 IGEPA와 스웨덴 SCA 그룹의 지원을 받아 개최될 예정이다.

경제성 담보하는 친환경 이슈

메세 뒤셀도르프의 베르너 M. 돈슈이트 CEO는 이번 주제에 대한 드루파의 책임이 특히 강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 공정단계를 아우르는 그린프린팅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는 2016년 개최될 드루파의 핵심 포인트의 하나가 될 것이다. 지속가능성의 관점은 전 세계적으로 각 브랜드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브랜드 오너들은 ‘친환경’ 기준에 집중할 수 있는 인쇄 커뮤니케이션을 기대한다. 이러한 트렌드는 인쇄인과 인쇄산업에게는 도전이 되고 있으며, 브랜드 오너들은 이미 착실히 진행되는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좋은 조언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인쇄는 중요한 영업 포인트로 성장하고 있다. 2014년 2월에 발표된 첫 번째 ‘드루파 글로벌 트렌드 리포트’에서는 조사 대상 인쇄업체 중 48%가 고객들의 수요를 받아들이기 위해 친환경 인증된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그리고 37%의 인쇄사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33%는 인증된 환경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제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제 토론

독일의 미디어산업협회 대표인 루이디게르 마브는 “경제적인 생산은 지속가능한 미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동기부여의 하나다. 이는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지속가능성 있는 중요한 효과를 창출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는 경쟁력의 토대다. 이전의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지는 이슈의 하나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공정 최적화의 효과’, ‘에너지 효율성’, ‘규격화’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룰 것이다. 또한 하나의 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변화를 완벽히 습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아이디어와

변화를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현명한 해답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과학, 환경협회, 정책 및 산업 분야에서 복무하는 국제적인 전문가들로부터 현재 상황은 물론이고,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 비평적으로 전개되는 토론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미디어를 창출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기대하지 않았더라도 현실에서 마주칠 수 있는 도전과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로마클럽 다니엘 담 박사 기조연설

로마클럽의 회원으로서 이번 회의의 기조연설을 맡은 다니엘 담 박사는 현재 종이산업이 처한 현실이 글로벌 과잉과 필요 영역의 부족이라는 상반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45세의 담 박사는 독일 친환경사회 포럼인 ‘Oekosoziales Forum Deutschland’와 유토피아가구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며, 이외 다른 비영리 조직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 발표된 포츠담 매니페스토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갈채를 받은 바 있다. 이는 현재 벌어진 위기 상황에 따라 근본적인 뿌리에 대해 탐험할 필요가 있으며, 인류 발전의 미래를 위해 재조명되고 최종적으로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종이산업의 지향점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친 유명 과학자들과 저명인사들은 이 성명에 이미 많이 사인을 했다. 이 회의에 다른 유능한 많은 강사도 강연을 맡아 동참한다.

메이케 게바르트(Utopia AG) :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의 지속가능성을 원하는가?

유베 루베르만(Premium Cols) : 미래를 위한 잠재된 마케팅

피터 제슈케(GC Graphic Consult GmbH) : 지속가능한 인쇄

알렉산더 로스너(zukunftswerk eG) : 지속가능성 커뮤니케이션(인쇄사업체 및 인쇄고객을 위한 가장 충격적인 행동 영역 상위 10가지) ↻



베르너 매티아스 돈슈이트
메세 뒤셀도르프 사장

